

순천만 습지 흑두루미 창작춤 고찰

Review of hooded crane dancing in Suncheon bay wetland

전 영 국

순천대학교 두루미과학예술센터

Jun Youngcook

Sunchon National University

1. 작품 이미지



2. 흑두루미 창작품 설명

2017년 11월 중순 경에 순천만에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도래한 흑두루미의 개체 수는 2000마리를 넘어섰다. 약 2000km 이상을 날아온 흑두루미들은 얇은 물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한 뒤에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순천만 습지에서 일출 무렵에 무리 지어 날아가면서 농경지에서 낱곡 등을 먹고 순천만 인근 지역을 비행하거나 놀이 활동을 한다.

2014년부터 흑두루미 몸짓을 흉내내면서 창작 활동을 해 온 저자는 걸어다니기, 뛰면서 날기, 날개 펼치기, 한쪽 다리로 서서 바라보기, 낱곡 먹기 등의 몸짓을 토대로 흑두루미춤을 창작하였다. 2014년 11월 순천시에게 개최되었던 흑두루미 국제 심포지움에서 창작춤

을 시연한 이래 물먹기, 다리풀기, 알 품기, 알 굴리기 등의 몸짓이 추가되었다. 저자는 2018년 4월 6일 순천만국가정원의 습지센터에서 개최된 두루미국제심포지움 개막식 공연에서 향상된 흑두루미춤을 시연하였다.

3. 작품 평론

흑두루미 창작춤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춤 계열의 춤사위와 상당히 차별화 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순천만의 생태환경과 인간의 관점을 토대로 흑두루미의 자연스런 동작을 토대로 춤 사위를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흑두루미의 생태적인 이해를 토대로 몸짓을 구성함으로써 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흑두루미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춤추

면서 노는지에 대하여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안무 작업을 하였다. 또한 순천만 흑두루미 두리의 이야기를 토대로 진화되고 있는 이 작품은 기존의 학연화대무, 동래학춤 등 궁중학무 및 민속학춤 등과 상당히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